

カトリックさいたま教区  
〒330-0061  
埼玉県さいたま市浦和区常盤 6-4-12  
TEL 81-(0)48-831-3150  
FAX 81-(0)48-824-3532



Catholic Saitama Diocese  
6-4-12 Tokiwa, Urawa-ku,  
Saitama City, 330-0061 JAPAN  
TEL 81-(0)48-831-3150  
FAX 81-(0)48-824-3532

## 2022년 신년메세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여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협동성에 대하여 이해를 깊게 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형제자매 여러분,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 있어,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작년 10월 17일 모든 성당에서, 2023년 10월에 개최되는 세계주교시노드를 준비하여 교구시노드의 시작을 기도드렸던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중요한 준비로서, 신도들에 앞서, 사제, 부제들과 함께 12월 7일, 살레시오회의 아베 나카마로 신부님을 초빙하여, 「교회의 함께 하는 삶, 협동성」에 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베신부님은,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취임초기부터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셨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상대방과 함께 산다는 것의 존엄을 모든 이가 깨닫고 다시 생각해 주기를 희망」하신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발전된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교의 복음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선교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노드의 의의가 큰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함께 하는 삶, 협동성」에 대하여 배우고, 토론하는 열정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므로, 우리의 토론의 장의 전망은 낙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특별한 「시련의 시기」를 「은총의 시기」로 바꾸기 위해, 주의 깊게, 그리고 대담히 전진하여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먼저 배운 사제, 부제 들은 여러분들과의 이제부터의 「협동」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사제, 부제들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의 다른 하나의 부탁은,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두가지 중요한 회칙, 「찬미를 받으소서」와 「형제여러분」을 다시한번 읽어 보시고, 그 뜻에 따라, 이 세계가 하나의 큰 가족이며, 이 지구는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생명의 「우리집」임을 한 층 더 마음에 새기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걸어갈 결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함께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안심하고 여러분 공동체르 방문하여,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될 날이 하루 빨리 찾아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께 가득하시길.

천주성모대축일에  
사이타마 교구 교구장  
주교 야마노우치 미치아키